

화학제품, 특히 석유화학 시장에 중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상상하기도 싫은 몰음일 것이다.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량의 60-70%를 수출하고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다고 하나 수출량의 50% 안팎을 중국으로 내보내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산업과 중국시장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라설 수 없는 일심동체와 같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시장만 쳐다보고서는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중동이 코스트가 낮은 원료를 내세워 중국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미국이 셰일가스 베이스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논리는 이미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잔소리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연평균 7% 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거나 성장률이 3%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면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역으로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동과 미국의 과잉물량이 길을 잃고 대양을 헤매게 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말 그대로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11일 위안화 환율을 1.86% 떨어뜨린 데 이어 12일 1.62%, 13일 1.11% 낮춤으로써 8월13일 달러당 환율이 6.4010위안으로 떨어졌다. 3일 동안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무려 4.66% 평가절하한 것이다.

중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환율을 3일간 4.66%를 떨어뜨리는 모험을 감행할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온 까닭을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투기꾼들이 중국경제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기업들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이 위안화와 동시에 떨어져 당분간은 국내 화학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면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12일 국내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 것도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도 1200원 수준으로 떨어진 후 1170-1180원 수준에서 안정돼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자급률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간재 수출은 긍정적일 수 있어도 완제품 수출이 불리해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국산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중국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훤히 다.

중국 경제가 위안화 평가절하 분위기를 타고 살아난다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림으로써 독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중국시장, 기대하지 말라!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